

民族運動 勢力的 共和主義・共存意識의 變化에 關한 試論

辛珠柏

1. 머리말
2. 政治的, 思想的 獨立의 追求
 - 1) ‘東洋平和論’의 克服과 競爭의 主體로서 國民・民族
 - 2) 共和主義의 理念의 大衆의 擴散
3. 民族運動의 分化和 共存意識의 實踐의 收容
 - 1) 共和主義의 理念과 共存意識의 定着
 - 2) 共和主義 勢力的 分化和 共存意識의 具體化
4. 共和主義의 具體化, 擴戰과 共生的 關係의 實踐
 - 1) 社會主義運動 系列의 소비에트共和制, 人民共和制
 - 2) 社會主義의 民族主義 勢力的 議會共和制
5. 맺음말

1. 머리말

흔히들 20세기에 국민국가가 완성되었으며, 지금의 21세기에는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민족이나 국가 사이에 장벽이 낮아지고,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명확해 질 것이므로 그에 따라 相生의 共生關係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일·중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한국인은 한반도가 아직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동아시아인의 공존에 필요한 한·일·중 삼국의 역사적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한·일·중 三國의 共

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와 같은 難題를 동아시아인들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를 보아도 주체적 존재로서 상대방을 인정하며 공존을 모색한 사례는 많았다. 반대로 三國間에 摩擦이 일어나면서 各國에서 激烈한 社會變動을 동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다.

논문에서는 韓國人이 競爭의 主體로서 他者, 곧 他民族과의 差別性을 明確히 하며 主體性을 確立하기 爲해 努力하는 한편, 東亞細亞人의 共存을 위해 활동했던 과정을 정리하겠다. 양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한국인의 움직임이 본계도에 올랐던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였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의 움직임을 주로 反日民族運動이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필자는 1931년부터의 항일운동을 反戰運動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논문에서는 타자와 구분되는 集團的 自我로서 ‘民族’을 發見하고 이 과정에서 共和主義 理念을 받아들이고 확산·분화시켰으며, 동시에 민족운동의 국제적 조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共存意識을 품고서 他者와의 共存을 摸索했던 韓國人의 努力을 고찰하겠다.¹⁾ 그런데 民族運動史의 側面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國外, 특히 中國에서의 活動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²⁾ 그래서 민족운동의 시기구분을 따라 1910년의 ‘韓日併合’, 1919년의 3·1運動, 1931년의 滿洲戰爭을 기준으로 제2, 3, 4장으로 구분하고, 주요 민족운동 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망라하여 서술하겠다.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을 따라 개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필자는 아직 한·일·중에서 共和主義와 共存意識이란 주제를 가지고 日帝強占下 民族運動史를 분석한 논문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러한 주제를 일본에서 발표하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政治的, 思想的 獨立의 追求

1) ‘東洋平和論’의 克服과 競爭의 主體로서 國民·民族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일본군에 패배하고, 淸國 軍隊도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에 패배하면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三國干涉 등으로 다소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일본은 1905년 統監府를 설치하고, 군대를 앞세워 義兵戰爭과 自強運動 勢力的 抵抗을 제압하면서 朝鮮의 植民地化에 必要한 具體的인 作業을 進行시켜 갔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즈음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 제국주의 상호간에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 열강은 서로의 기득권을 보장하며 피압박민족의 저항을 공동으로 억압하는 등 협조적인 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이를 보면, 제국주의 열강 상호간의 안정된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 중심의 冊封體制가 허물어지고 日本 帝國主義 中心의 垂直的 支配體制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1910년 ‘한일병합’을 둘러싸고 대한제국 내에서 대중적인 대응이 일어나지 못했고,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일본의 행위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외적 정세를 염두에 두고 다시 1907년 이후 신민회를 중심으로 한 자강운동 세력의 동향을 정리해 보자. 즉,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統監府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행보를 계속해 가자 大韓帝國內에서는 義兵戰爭과 自強運動이란 두 갈래의 대응이 일어났다.³⁾ 그 가운데 1907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는 상황에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계몽적인 수단을 동원해 실력을 양성하려던 자강운동 세력 가운데 일부가 새로운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新民會가 그 대표적인 단체였다. 新民會는 1909년경부터 沿海州와 滿洲 일대에 獨立運動 基地를 開拓하여 長期的인 抗日鬭爭을 모색하다.⁴⁾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식도 깔려 있었다.

지난날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 천황폐하의 선전조치 중에 한국의 독립을 부식하고 東洋의 平和를 유지한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 한국의 일반 인민이 감격하여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여 수천 리 장도에 군량기계를 운수하며 도로·교량을 짓고 수리하여, 露日의 講和가 성립된 결과로 일본군이 개선향에 한인이 자국의 개선과 같이 환영하여 이로부터 한국의 독립은 건고할 줄로 확신하였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1905년 11월에 이르러 이토 히로부미가 대사로 韓國에 와서 國賊인 一進會 두령 수명에게 금전을 많이 주고 사주하여 宣言凶書를 발표케 하고, 그 병력으로써 황실과 정부를 위협하여 5조약을 제출케 하였다. …(또한 - 인용자)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빼앗았으며, 국내의 제반 이익을 몰수 약탈하므로 한국인민은 상하를 불문하고 그 분한 원망이 골수에 사무쳐 切齒腐心하니, 이는 한국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동양 전국의 불행이다. … 우선 그를 誅殺한 후에야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줄로 인정하고…5)

이 글은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狙擊하고, 旅順監獄에서 死刑당하기 直前に 著述한 未完成의 「東洋平和論」의 일부이다. 安重根이 보기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독립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이 對等하게 協力하며 東洋平和를 지켜나가야 하는 현실을 파괴한 일본의 선봉장이었다.

安重根이 대한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 등의 ‘동양 평화’에 관한 주장의 허상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나름대로 ‘동양평화론’을 제기했다면, 申采浩는 國民主義와 民族主義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며 일본인의 동양평화론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하였고, 점차 일본을 포함한 서양 열강을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즉, 申采浩는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를 “韓人의

民族主義가 强健” 하지 못한데서 찾고, “民族主義를 大奮發하여 ‘俄族의 國은 俄族이 主張한다’ 는 一句로 護身符를 作하여 民族을 保全할 지어다” 라고 하여 民族主義만이 帝國主義에 抵抗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⁶⁾ 그에게 있어 민족주의는 皇帝나 소수의 官僚, 또는 일부의 知識人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이 주도하는 것이었다.⁷⁾ 요컨대 申采浩는 일본과의 경쟁의 주체를 국민과 민족에서 찾았다. 하지만 申采浩의 民族主義는 아직까지 反帝國主義的 立場이 아니었다. 그는 萬國公法의 秩序를 수용하고, 社會進化論의 競爭法則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國際秩序를 法則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⁸⁾

申采浩의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은 1910년 8월 국민이 부정된 ‘한일병합’ 이란 역사적 충격을 계기로 나타났다. 그는 ‘한일병합’ 직후 발표한 「新教育(情育)과 愛國」이란 글에서 競爭의 主體로 國民 대신 民族을 전면에 내세웠다.⁹⁾ 申采浩는 한국의 풍속·습관·언어·기후·풍토·역사·종교 등에 나름대로 고유한 ‘國粹’가 있으며,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이고, 이를 지키는 것이 愛國이라고 보았다.¹⁰⁾

2) 共和主義의 理念의 大衆의 擴散

1909년 이후 新民會에서 공화주의를 수용한 흔적이 확인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항일운동 세력 가운데 1910년 이전에 이미 이념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력은 自強運動 내에서조차 극히 소수였다.

‘한일병합’ 이후 1910년대 항일운동 세력이 내세운 정치적 이념의 대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復辟의 亡命政府를 수립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한 이후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絶對君主制를 주장하는 復辟主義, 고종황제를 국외로 탈출시켜 亡命政府를 수립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독립 이후에 立憲君主制를 실시하자는 保皇主義, 그리고 亡命政府 대신에 臨時政

府를 堅立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후 國民主權說에 立脚하여 民主政府를 수립하자는 共和主義가 있었다. 1917년 경에 이르면 세 대안 가운데 共和主義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족운동 내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1910년대 민족운동의 이념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이 점이다.

1910년대 공화주의 이념의 내용은 1917년 7월경에 발표된 「大同團結의 宣言」에서 확인할 수 있다.

…隆熙皇帝가 三寶(土地·人民·政治)를 拋棄한 8月 29日은 卽 吾人同志가 三寶를 繼承한 8月 29日이니, 其間에 瞬間도 停息이 無함이라. 吾人同志는 完全한 相續者니 彼 皇帝權 消滅의 時가 卽 民權 發生의 時요, 舊韓國 最終의 一日은 卽 新韓 最初의 一日이니, 何以故오. 我韓은 無始 以來로 韓人의 韓이오, 非韓人의 韓이 아니라. 韓人間의 主權授受는 歷史上 不文法の 國憲이오, 非韓人에게 主權讓與는 根本的 無效요, 韓國民性의 絶代 不許하는 바이라. 故로 庚戌年 隆熙皇帝의 主權 拋棄는 卽 我國民 同志에 對한 默示의 禪位니 我同志는 當然히 三寶를 繼承하여 統治할 特權이 있고, 또 大統을 相續할 義務가 有하도록다.¹¹⁾

요컨대 宣言에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隆熙皇帝가 포기했으므로 독립 이후에 세워야 할 ‘新韓의 主權’은 國民에 있다고 하여 國民主權說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융희황제는 독립 이후에 권력을 계승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大同團結 宣言」은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의 주요 지도자 대부분이 서명한 문서로서, 1917년 당시 민족운동가들의 정치사상과 민족운동 방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선언에 따르면, 민족운동가들은 여러 민족운동 단체가 大同團結하여 장래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통일기관을 결성하고, 이 기관을 발전시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벌여 독

립을 획득한다는 전망을 제기하였다. 실제 1919년 9월 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주권론을 내세우며 각각 서울, 블라디보스토크, 上海에서 결성된 임시정부를 통합한 정부였다.

그런데 서유럽처럼 시민혁명의 경험도 없고, 封建國家의 後身인 大韓帝國에서 곧 바로 주권을 상실하면서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전혀 경험할 수 없었으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당시까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인이 공화주의란 이념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1910년대 국제정세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0년대 민족운동의 주력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었다. 해외의 민족운동 세력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흩어져 활동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세, 더 나아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1911년 孫文의 주도 아래 共和主義를 主唱하며 清을 打倒하자는 辛亥革命이 中國人에 의해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慕華思想에 입각하여 絶對君主制를 주장하고 있던 復辟主義 세력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¹²⁾ 마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스스로 몰락해 갔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을 지켜보며 받은 충격에 견줄 수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정세가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이다. 이 전쟁은 帝國主義 相互間의 戰爭으로서 民主共和主義를 追求하고 있던 國家가 王政 또는 立憲君主制를 實施하고 있던 국가에 승리한 것으로 끝났다. 더구나 민주공화주의 세력이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미국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고, 미국 자신이 전쟁에 개입하는 명분 가운데 하나로 民主主義의 守護를 내세웠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정세가 일본에서의 정세변화다. 일본에

서는 1912년 말부터 1913년 사이에 ‘閥族打破, 憲政擁護’를 내세우는 대중적인 헌정옹호운동이 일어나고, 정당내각제의 정치 관행이 확립되는 등 다이쇼데모크라시의 정치가 실시되고 있었다.¹⁴⁾

마지막으로 1917년 10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짜르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한 역사적 사건을 들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볼셰비키가 세운 사회주의국가는 이제까지 없었던 권력체였다. 하지만 그들은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며 지지를 얻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봉건국가인 짜르러시아 대신에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를 수립했으며,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지하였다.

다음은 민족운동 세력의 주체적 조건을 살펴보자. 조선왕조는 王을 정점으로 피라미트와 같은 형상의 수직적인 사회구조를 갖춘 신분제 국가였지만 1910년 주권을 상실하였다. 민족운동가들로서는 강력한 일본에 대항하여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민족운동가들이 일반 대중에게 독립 이후에 이전의 사회로 돌아간다고 전망을 제시한다면 민족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할 것은 뻔한 이치였다. 더구나 뒤에서 언급할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권 상실의 책임을 황제 또는 양반에게 돌리는 것이 1910년대의 사회 분위기였던 현실에서 과거의 지배자들이 다시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는 新國家를 大衆이 支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경쟁할 주체로서 ‘민족’을 제시하고, 민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고, 독립 이후의 新國家에서 권리를 누리자는 주장은 민족의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외침이었다. 그것이 바로 ‘大同團結論’으로 압축되어 「大同團結 宣言」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大同團結論은 중국과 한국의 儒家에서 말하는 ‘大同世界’라는 傳統的인 理想社會論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¹⁵⁾ 달리 말하면, 1910년대 國民主權論에 입각하여 제기된 韓民族의 大同團結論은 민족운동이 처한 內外的인 狀況論 또는 戰略的 必要性에 의해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사상적 바탕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大同團結論은 일본에 대항하는 韓國人만의 團結

을 주장하는 사상으로서만이 아니라 人類의 大同까지 염두에 둔 주장이었다. 그것은 1919년 이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1919년 3월 1일, 高宗皇帝의 國葬을 契機로 3·1運動이 일어나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 가량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일본측의 통계에 따르면,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만세시위로 수감된 8,511명 가운데 58.4%가 농민, 지식인·청년·학생이 20.8%, 상공업자 가 13.8%, 노동자가 3.9%, 무직자가 3.1%로서 시위참가자의 대다수는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民衆層이었다¹⁶⁾. 이들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 만세시위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갖는 등 民衆의 利害에 따라 시위에 동참한 경우도 많았다.¹⁷⁾ 더구나 이들은 누구의 선동이나 지도에 의해 시위에 참가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政治的 判斷에 따라 抗日示威 隊列에 同參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廣範圍한 民衆層의 示威 參加는 이후 農民運動, 勞動運動 등 日常的 大衆運動으로 이어졌다. 당시까지의 역사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민중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常時的인 組織, 그것도 지배세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한 모습은 3.1운동을 거쳐 1920년대 가서야 등장하였다. 결국 3·1운동은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족운동가들 사이에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던 共和主義的 理念이 大衆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음을 確認시켜 준 歷史的 事件이었다. 또한 3·1운동은 大衆的 民主主義의 土壤이 反帝國主義的 내셔널리즘이라는 내용으로 표현된 첫 번째 사건으로서, 反帝國主義的 내셔널리즘이 大衆化 段階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한반도에서의 대중적 민주주의는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과 결합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어 갔다.

3. 民族運動의 分化와 共存意識의 實踐的 收容

1) 共和主義의 理念과 共存意識의 定着

대중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의 분위기는 블라디보스토크, 서울, 그리고 上海에서 각각 임시정부를 결성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 개의 臨時政府는 1919년 9월 統合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結成하는데 참가하였다. 그리고 통합 임시정부는 의회적 기능으로서 臨時議政院도 두었다.

統合 臨時政府에는 1918년 하바로브스크에서 한국인 사회주의운동 그룹으로서는 처음 결성된 韓人社會黨도 참여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들이 망라되어 있던 세 개의 임시정부와 한인 사회당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화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國內外的 民族運動 勢力間에 復辟主義나 保皇主義를 주장하는 세력은 대중 사이에서 설 땅을 잃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統合 臨時政府의 結成은 이러한 흐름을 組織적으로 擔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결성 당시에 제정된 「大韓民國 臨時憲章」과 「政綱」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臨時憲章

제1조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

제3조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 貴賤 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

제7조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여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여 人類의 文化 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이여 國際聯盟에 加入함 …

政綱

1. 民族 平等, 國家 平等 及 人類 平等의 大義를 宣傳함.…¹⁹⁾

요컨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임시정부의 성립은 한마디로 공화주의 이념이 대세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켰다.

임시정부의 헌장과 정강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임시정부는 제3조를 통해 ‘국민 모두가 평등’한 민주공화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국가건설 방안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政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국가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국가의 평등, 나아가 인류의 평등을 지향하겠다고 하여 排外主義的인 態度를 배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결국 앞서 언급한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에서 표출된 大同論이 헌장과 정강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헌장의 제3조와 관련지어 볼 때, 민족 구성원 모두의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임시정부의 주장은 이미 日帝強占下 朝鮮社會 構成員 內部的 社會經濟的 多層性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觀念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민주공화주의 이념이 서유럽과 같은 市民革命的過程을 거치지 않은 韓國의 特徵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의 평등, 곧 세계의 대동을 원칙적으로 지향하려는 활동의 일환이기도 한 國際聯盟을 통한 抗日活動이 갖는 制限性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國際聯盟 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여 독립을 획득하려고 滿洲 獨立軍의 活動水準과 方向을 조절하기도 하였다.²⁰⁾ 또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李承晩은 미국의 윌슨대통령에게 “한국을 당분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둘 것”을 제안하였고,²¹⁾ 임시정부의 요인을 비롯한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1921년의 워싱턴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일본통치의 위법성에 주목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²²⁾ 그러나 서구 열강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전후문제에 대해 일본 등 勝戰國의 利害를 보장하였다. 결국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조건과도 일정한 연관은 있었겠지만, 申采浩와 같은 소수의 민족운동가에

의해 확인되기 시작했던 한국인의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은 많은 민족운동가들 사이에 여전히 일본 이외의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까지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철저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2) 共和主義 勢力의 分化和 共存意識의 具體化

그러나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제한적인 한계성을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젊은 청년·학생·지식인 등은 조선사회에서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곧 民衆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3·1운동 때 독립에 실패하자 민족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에 주목하였고, 워싱턴회의(1921. 11 - 1922. 2)와 극동민족대회(1922. 1. - 2) 등을 거치며 피압박민족의 독립을 지지한 소비에트정부를 비롯하여 世界 各國이 朝鮮의 獨立問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젊은 청년·학생·지식인 등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념과 독립운동 방법, 그리고 출신지역에 따라 복잡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도 목격하고 있었다. 결국 ‘민중’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고뇌의 결과였고,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獨立新聞』에서까지 민중론에 입각하여 독립운동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자는 주장이 社說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獨立運動은 生을 爲하고 自由를 爲하여 하는 것이다. … 우리 運動의 一部 內面에는 特殊階級の 運動인 듯한 黑點이 보인다. 아직도 隆熙時代의 志士 愛國者 階級の 運動인 듯한 觀이 不無하다. … 民衆의 大部는 如此한 階級の 跋扈를 疑心없이 許容한다.

이것이 勿論 民衆의 自覺이 不足한 허물도 있으려니와 在來로 이와 같지만 處事하여 온 特殊階級の 責도 不無할 것이다.

獨立運動은 決코 英雄運動도 아니며 志士들만 할 運動도 아니라. 生의 飢渴에 迫한 者 다 일어나 할 것이오 壓迫에 呻吟하는 者 다 힘써 할 것이다.²³⁾

이처럼 ‘獨立運動의 民衆化’를 주장하는 흐름, 곧 민족운동에서 대한제국기의 애국지사들과 대칭되는 범주로서 民衆의 役割에 주목하고, 이를 鬭爭方略과 接木시키려는 움직임은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민중론의 확산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에 입각하여 항일투쟁론을 제기한 세력은 1919년 中國의 吉林에서 결성된 대표적인 아나키즘 단체인 義烈團이었다. 義烈團의 理念을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은 申采浩의 「朝鮮革命 宣言(1923. 1)」이다. 申采浩는 內政獨立論, 自治論, 參政權論, 文化運動論, 外交論, 準備論 등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迷夢을 버리고 民衆 直接革命의 手段을 取”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병전쟁이 “忠君愛國의 大義로 奮激하여 일어난 讀書階級의 思想”이고, 安重根의 행동은 열렬했지만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없었으며, 3·1운동 역시 “만세 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가 언뜻 보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²⁴⁾ 요컨대 申采浩는 民衆에 의한 直接 暴力鬭爭을 통해 獨立을 달성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치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⁵⁾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경우가 朝鮮共產黨으로 象徵되는 社會主義運動 勢力이다. 국내외의 젊은 지식인들은 3·1운동 이후 일본과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회주의사상을 민족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받아들였다. 사회주의사상의 확산 과정에서 결성된 여러 공산주의그룹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세력을 확산시켜 갔다. 그 가운데 한 분파인 火曜會 등이 나서서 1925년 4월에 결성한 조직이 朝鮮共產黨이다. 국내에 본부를 두고 있던 조선공산당은 滿洲에 滿洲總局을 設置하였고, 日本의 東京과 中國의 上海 등지에도 조직을 두고 1928년까지

존속하였다.

창립 당시 조선공산당의 선언과 강령이 없어 그들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1926년 7월 朝鮮共產黨 中央執行委員會의 이름으로 발표된 「朝鮮共產黨 宣言」은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귀중한 문헌이다. 「선언」에 따르면, 朝鮮共產黨은 ‘민족 유일 전선’을 결성하고 일제와 투쟁을 벌여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자계급의 해게모니가 관철되는 ‘民主共和國’을 수립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즉 “국가의 최고 및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 조직된 직접·비밀·보통 및 평등선거로 성립된 입법부”에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었다.²⁶⁾ 이는 3권 분립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미국의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독립 이후에 2권 분립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創黨 때의 지도부가 와해되고, 1926년 9월에 새로 재건된 조선공산당, 달리 말하면 ‘제3차 조선공산당’에서는 독립 이후에 ‘人民共和國’을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의 구성과정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르게 상정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공산당 선언」처럼 보통선거의 원리에 의해 입법부를 구성하자는 점에서는 같았다. 다만, 제3차 조선공산당은 민족운동 시기에 “소비에트공화국”의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急進”이며, “부르조아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緩進”으로서 “양자 모두 배척”해야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²⁷⁾ 이러한 인식은 創黨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朝鮮共產黨 宣言」의 첫 머리에는, “전세계무산자와 동방피압 박민족은 단결하라”라고 나온다.²⁸⁾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공산당이 지향하는 민족운동, 국가 건설은 세계의 노동자계급 및 동아시아의 피지배민족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²⁹⁾ 이와 같은 입장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전제로 했던 맑스-레닌주의 혁명론에 따라 제기된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지만, 1920년대 초반기 민중론이 민중 일반을 어떠한 체계를 갖고 단결시킬 것이며 누구의 이해를 기준으로 미래를 전망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던 점

과 비교한다면 나름대로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 역할에 주목하며 나타난 세 번째 세력이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세력이다.³⁰⁾ 선행 연구에서 해외의 민족주의운동 계열로 분류해 왔던 사람의 상당수가 이 세력에 포함된다. 민족주의운동 계열에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20년대 중반경부터였다.

즉, 1926년 다물黨은 다물靑年黨(1923년 결성)에서 이름을 바꾸고 강령과 활동방향을 확정하였다.³¹⁾ 다물黨은 “民族資本主義를 固執” 하는 세력, 직접적인 “무산혁명을 주장” 하면서 “民族運動을 부인” 하는 세력, 세계의 “혁명 계급으로서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民族現本의 立場”에서 각 부문단체의 공통성을 찾아 단결해야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대중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한국인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일본을 박멸하고 자본제도를 타도하여 “민족 본위의 생활 평등의 新幸國家”, 곧 “萬人”이 “同慶”하는 “社會主義的 新國家”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³²⁾ 그리하여 강령을 통해 자신들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다.

1. 적을 구축하여 생활 평등의 신국을 건설할 것.
2. 제국주의와 자본제도를 타도할 것.
3. 약소민족 피압박 계급의 해방운동과 동일한 전선을 취할 것.³³⁾

다물黨의 강령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민중 중심의 독립운동과 독립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동단결 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나오는 민족대동단결론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反帝國主義와 反資本制度에 동조하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단결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대동단결도 ‘약소민족 피압박 계급’의 운동과 대동단결로 바뀌었다.

이를 압축한다면, 막연한 대동단결과 대동사회를 주장하던 과거와 달리 민족과 세계의 다층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반제국주의 내셔널리즘의 일반성이 정신적으로 획득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다물黨과 같은 주장은 1926년 吉林에서 결성된 高麗革命黨의 강령과 민족운동론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어진다.³⁴⁾

그런데 두 단체의 구성원을 보면 만주지역 민족주의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正義府 소속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의부는 비록 중국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활동구역에 거주하는 移住韓人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제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군대를 屯田制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하였다. 그렇지만 이주한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권리는 ‘正義府憲章’에만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參議府·新民府에서도 마찬가지였다.³⁵⁾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던 대한제국기의 관념이³⁶⁾ 민주공화주의 원리를 받아들인 三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일제강점기에는 항일투쟁과 독립을 위해 민족의 이름으로 이러한 一方通行式 組織運營이 正當化되고 있었다.

民族主義運動 系列 內部에서 獨立 以後에 資本主義 國家를 建設하려고 했던 勢力과 갈라선 새로운 세력인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곧 社會民主主義 勢力은 滿洲에만 있지 않았다. 中國의 本土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1927年頃 安昌浩에 의해서였다.

안창호는 1926년 7월 上海의 三一堂에서 행한 연설에서 “共產主義”, “民主國”, “君主制” 가운데 “民衆 多數가 願”하는 대로 “獨立하여 세울 國體政制”를 確定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내가 가진 主義는 바로 무엇이랴 이를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나는 大生産機具를 國家 公有로 하자 함에 同感하는 자오. 나
도 無産者의 하나이므로 다수한 貧者를 위하여 富者와 資本의

權利를 打破하여야 될 것으로 아오.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은 富者니 貧者니 有産者니 無産者니를 莫論하고 다같이 合同 團結하여 오직 한 낫 일본을 적으로 삼고 民族革命을 하여야만 쓰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오.³⁷⁾

안창호는 1929년 11월 上海의 臨時政府 參與 勢力 등이 주도하여 결성한 韓國獨立黨에도 積極 參與하였다. 韓國獨立黨은 “政治·經濟·教育의 均等を 기초로 하는 新民主國을 建設하고, 그리고 內는 國民 各個의 均等生活를 確保하고, 外는 民族과 國家와의 平等을 實現” 하자고 주장하며, 강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³⁸⁾ 결국 그가 建設하려는 國家는 國內外的으로 平等한 ‘新民主國’이었다. 다물黨 및 高麗革命黨의 지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朝鮮共產黨과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곧 다물黨, 高麗革命黨, 安昌浩, 韓國獨立黨 등의 주장에서 말하는 平等은 달랐던 것이다. 즉 독립 이후에 세울 국가에서의 民主主義의 內容이 달랐다. 전자는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원칙적으로 지향하였다. 하지만 후자의 평등에서는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헤게모니론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國家의 平均主義였다. 한국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대동사상을 식민지라는 민족적 현실과 민중론에 입각하여 변용시킨 독특한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타자와의 공존관계를 설정하는 데서도 달랐다. 사회주의운동 세력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웠는데 반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은 被壓迫民族 對 被壓迫民族 또는 國家 對 國家의 對等한 關係를 강조하였다. 다만, 두 세력 모두 막연한 민중론을 제기하지 않고 朝鮮社會의 多層性에 注目하여 抗日에 同調하는 弱小民族과의 國際的 連帶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있었다. 이 점이 아나키즘의 민중론과 다른 점이기도 하였다.³⁹⁾

4. 共和主義의 具體化, 擴戰과 共生的 關係의 實踐

1) 社會主義運動 系列의 소비에트共和制, 人民共和制

1931년 9월 일본이 滿洲를 침략함으로써 滿洲戰爭이 일어났다. 滿洲가 戰場化되면서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대응은 명확하였다. 친일분자를 제외한 많은 移住韓人은 총을 들고 싸우는 길만이 일제의 침략에 抵抗하는 唯一한 手段이었다.

그런데 1931년 당시 滿洲地域 韓人의 民族主義運動 系列, 곧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勢力과 社會主義運動 系列은 이념을 떠나 크게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만주에 거주하는 사회주의자들은 ‘二重의 任務’, 곧 ‘1國1黨 原則’을 준수하여 ‘우선 중국혁명의 성공을 위해 활동하고, 이어 조선혁명을 위해 노력’ 한다는 입장에 따라 1929년부터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가입은 1931년 들어 대체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해 4월 현재 中國共產黨 滿洲省委員會 소속의 당원 1,190명 가운데 96% 이상이 韓國人이었으며, 1월 현재 共產主義靑年團 1,500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농촌의 빈농 출신 韓國人이었다.⁴⁰⁾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조선의 民主主義革命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선 중국의 민주주의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때문에 만주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 당원들이 중국공산당이 지휘하는 東北人民革命軍(東北反日聯合軍) 第1軍부터 第7軍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당연하였다. 滿洲地域의 韓國人 社會主義者들은 民族的 生存을 위해 총을 들고 共生的 實踐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의 공화주의는 1920년대 朝鮮共產黨의 共和主義와 달랐다. 소비에트공화제를 주장한 것이다. 물론 이것도 二權分立의 原理에 의해 운영되는 政體였지만, 1920년대 조선공산당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는 普通選舉 原理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었다.⁴¹⁾ 하지만 소비에트共和制는 노동자, 농민, 병사

등의 議會進出權에 차별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階級差別制에 基礎한 職能別 代表制였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1930년대 국내에서 朝鮮共產黨 再建運動을 벌이던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었다.⁴²⁾

그런데 일본의 대륙침략이 계속되어지고, 1937년 7월에는 일본군이 중국의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는 中日戰爭이 일어났다. 이제 戰線은 滿洲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간이었던 본토지역까지도 戰場化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에 대응하여 生存을 위한 共生的 實踐을 지속하는 한편, 人民共和制로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 在滿朝鮮人祖國光復會의 「10大綱領」이다. 강령의 제1항에는 광범위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여 일본의 통치를 ‘顛覆’하고 “韓國의 獨立的 人民政府”를 수립하겠다고 명시하였다.⁴³⁾ 이러한 내용은 가능한 한 모든 항일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방침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는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920년대 조선공산당이 추구하던 정제 원리, 즉 보통선거를 통해 공화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화주의 원리를 실천하던지 노동자계급 해게모니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았다. 또한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가 활동하던 시점부터 1945년 解放된 그 날까지 중국의 본토와 국내의 단체에서도 ‘朝鮮民主共和國’ 또는 ‘人民政府’라는 이름의 共和制를 지향하였다.⁴⁴⁾

2)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勢力의 議會共和制

일제가 만주를 침략할 때 이 곳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은 國民府(1929) - 朝鮮革命黨 - 朝鮮革命軍의 지도체제를 갖추고 南滿洲 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룹과 韓國獨立黨(1930) - 韓族自治聯合會 - 韓國獨立軍(1931)의 지도체제를 갖추고 北滿洲 일대에서 활

동하던 그룹이 있었다. 이들은 만주지역의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中國國民黨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인 항일부대와 공동작전 등을 벌였다.⁴⁵⁾

여기에서는 두 집단 가운데 입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활동이 선명한 國民府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자.⁴⁶⁾

國民府는 1929년 9월에 열린 제2회 中央議會 때 「朝鮮情勢에 對한 決定書」를 통해 독립 이후에 “3. 노동자·농민의 소비에트정부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⁴⁷⁾ 당시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공화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래간 것 같지 않다. 1934년 중국의 본토에서 조직된 民族革命黨의 綱領을 이어받은 朝鮮革命黨은 “진정한 民主共和國를 建設하며, 國民全體 生活의 平等을 확보하고, 世界 人類의 幸福을 추진한다”는 「黨義」를 내세웠기 때문이다.⁴⁸⁾ 또한 국민부는 “10. 세계 피압박 민족과 견고하게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⁴⁹⁾

그런데 국민부의 무장부대인 조선혁명군은 1934년경까지 중국공산당이 지휘하는 유격대와 같은 활동 공간에서조차 공동작전을 펼치지 않았으며, 두 세력은 서로 敵對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하지만 1933년 9월 이후 중국공산당 남만특별위원회의 적대적 방침이 취소되고 조선혁명군도 1934년경부터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조선혁명군은 1936년 들어 중국공산당의 유격대 및 중국국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무장부대와 공동투쟁 기구를 만들었고, 1938년 들어 조선혁명군의 일부 병력이 중국공산당의 東北抗日聯軍 第1路軍에 직접 참가하였다. 이로써 만주지역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은 사라졌다.

한편, 중국 본토의 안창호와 한국독립당에서 제기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이념은 1941년 11월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建國綱領」에서 구체적이고 세련되게 반영되었다.⁵⁰⁾ ‘제3장 건국’의 제2항을 보자.

三均制度를 骨子로 한 憲法을 實施하여 政治와 經濟와 教育의 民主的 施設로 實際上 均衡을 圖謀하여 全國의 土地와 大生産機關의 國有가 完成되고 全國 學齡 兒童 全部의 高級教育의 無料 受學이 完成되고 普通選舉制度가 拘束없이 完全히 實施되어 全國 各 里洞村과 面邑과 島郡府와 道の 自治組織과 行政組織과 民衆國體와 民衆組織이 完備되어 三均制度가 配合 實施되고 京鄕 各層의 極貧階級の 物質과 精神上 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이 提高 保障되는 過程을 建國第二期라 함.⁵¹⁾

그리고 제4항에서는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의 「임시헌장」과 1929년에 제정된 한국독립당의 강령, 그리고 조소앙이 1931년 4월에 起草한 三均制度의 建國原則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國民主權設에 입각하여 議會共和制를 그대로 관철시키며 이를 심화시켜 갔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일제강점하 민족운동사 속에서 한국인의 공화주의 이념, 타자와의 공존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민족의 주체적 현실을 자각하고 국 제정세의 변동을 눈여겨 보던 민족운동가와 대중 사이에 大同論에 입각한 민주공화주의 이념이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1919년 3·1 운동 이후, 社會主義思想 등 다양한 이념이 급속히 유입되었으며, 民衆論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다층성에 주목한 민족운동가 들은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운동 세력에 따라 다양한 민주공화주의 이념을 제기하고 실천하였다(의회공화제, 소비에트공화제, 인민공화제, 민주공화제 등등).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민주공화주의 이념의 다양화, 분화과정을 따라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에 묻혀 있던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의 精神的 不徹底性은 점

차 극복되어 갔다.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勢力은 이념을 구체화시키고 세련되게 다듬어 갔지만 1945년까지도 여전히 平均主義 世上인 大同世界를 꿈꾸었다. 社會主義運動 勢力은 활동 시기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보통선거에 기초한 민주(인민)공화제로 정착되었다. 1946년부터 시작되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民主改革’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서유럽에서 공화주의 정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혁명의 과정을 통해 봉건적 차별을 극복하고 자유·평등·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내세웠다. 일제강점 시기에 공화주의 이념도 역시 이러한 원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직접적인 실천 과정에서 획득된 기본원리가 아니었고, 일제강점이란 시대적 상황에서 제대로 실험 한번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강고한 실천원리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1945년 이후 공화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항일투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附日協力者들이 社會的 主導權을 掌握하고 있는 南韓의 現實에서는 한 동안 그러한 원리가 生活 屬에 安着될 機會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일제강점기에 공화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항일투쟁 세력이 1945년 이후에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이 기본원리가 곧 바로 일상에 정착되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대한제국기의 관념이 일제강점기의 求亡의 歷史, 鬭爭 中心의 歷史 속에서 제대로 심화될 기회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滿洲의 三府에서도 국민을 민족의 이름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오랜 민주주의 과정에서 공화주의의 기본원리가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共存意識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의 일상에서 집단적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낯선 異邦人에 對해 排他性을 表出하는 行爲나, 소수자(비주류)의 권리(권익)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는 行爲의 歷史性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이러한 제약 요건에 따

른 한계는 공존의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되고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공화주의의 기본원리와 공존의식의 제한성이 점차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 역시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요 미래이다.

- 1) 공화주의는 직접민주제적 공화주의, 간접민주제적 공화주의 또는 의회 공화제, 소비에트공화제(인민공화제)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논문에서는 이를 후자의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
- 2) 1920年代 國內 民族主義運動 系列을 區分할 때 妥協·非妥協 民族主義 또는 民族主義 左派·右派로 구분한다. 이들에게서 공화주의와 공존의식에 관한 내용을 자료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 3) 이에 대해서는 趙東杰의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知識産業社, 1989)를 참조하였다.
- 4) 尹慶老, 『105人事件研究』, 一志社, 1990
- 5) 『東亞日報』, 1979年 9月 19日 - 24日
- 6) 『丹齋申采浩全集』(改訂版) 下, 螢雪出版社, 1977, 108 - 109쪽(「帝國主義와 民族主義」, 『大韓每日申報』, 1909年 5月 28日).
- 7) 『丹齋申采浩全集』(改訂版) 別集, 螢雪出版社, 1987, 210 - 229쪽(「20世紀 新國民」(1910. 2. 22 - 3.3)).
- 8) 朴贊勝, 「韓末 申采浩의 歷史觀과 歷史學」, 『韓國文化』 9, 1988, 318쪽
- 9) 『丹齋申采浩全集』(改訂版) 下, 1977, 133 - 134쪽.
- 10) 鄭昌烈, 「近代國民國家 認識과 내셔널리즘의 成立過程」, 『韓國史』 11, 1994, 76 - 77쪽. 1910年代 海外의 民族運動者 가운데 韓半島의 古代史에 關해 研究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古代史 研究, 곧 民族의 뿌리찾기를 통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찾고, 抵抗의 理由와 運動의 求心力을 擔保하려고 하였다.
- 11) 「大同團結 宣言」, 4쪽(『韓國學論叢』 9, 1987 수록)
- 12) 그렇지만 小中華意識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탈각되어 가지 않고 外的인 衝擊에 의해 결정적인 전환 국면을 맞이하였다는 점은 문제였다. 그것은 뒤에서 언급할 大同論에 입각한 國民主權論의 限界性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되었다.
- 13) 이상은 趙東杰, 「1910年代 獨立運動의 變遷과 特性」, 前掲書, 371 - 372쪽을 요약, 보충하였다.
- 14) 이에 대해서는 川人貞史, 『日本の政黨政治 1890-1937年』, 東京大學

- 出版會, 1999, 99 - 180쪽을 참조하였다.
- 15) 대동세상이란 道の 政治가 실현되어 어진자와 능력있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老弱者 등 소수자가 보호받으며, 모든 젊은이들이 일하고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한다.
 - 16) 近藤 鈿一 編, 『萬歲騷擾事件』 1, 1964, 223 - 227쪽.
 - 17)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6, 1972, 987쪽 ;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1968, 676 - 678쪽. 895쪽. 이 밖에도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 18) 만주지역에서는 1923년 2월 義軍府라는 復辟主義 武裝單體가 결성되어 잠시 활동한 때가 있었지만, 이 곳에서도 민족운동 조직으로서의 復辟主義는 義軍府가 마지막이었다. 그리하여 만주지역에는 1923년에 參議府, 24년에 政義府, 25년에 新民府가 각각 결성됨으로써 북벌주의 세력의 몰락이 확인되었다.
 - 19)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3, 1968, 326 - 327쪽.
 - 20) 이에 대해서는 辛珠柏, 「1920年 戰後 在滿韓人 民族主義者の 民族 現實에 對한 認識의 變化 - 獨立戰爭論과 關聯하여」, 『韓國史研究』 111, 2000 참조.
 - 2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9, 高麗書林, 1975, 509쪽.
 - 22) 자세한 것은 辛珠柏, 前掲論文 참조.
 - 23) 「獨立運動의 民衆化」, 『獨立新聞』 1922年 9月 30日. 『獨立新聞』의 기사를 분석해 보면, 1920년부터 러시아의 역사, 혁명사, 그리고 사회주의를 소개한 글 등이 거의 매일連載되고 있다.
 - 24) 『丹齋申采浩全集』(改訂版)下, 1977, 35 - 46쪽. 초기 의열단은 개인 폭력 활동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인폭력투쟁의 효과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은데 반해, 조직원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1926년경에 들어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띤 운동 단체로 전환하였다.
 - 25) 우리는 이 대목에서 申采浩가 國民을 우선 내세웠던 1910年 以前과 달리 民族 內部的 多層性에 注目하며 國民 대신에 民衆을 내세우는 思想의 變化・發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만길은 그 원인을 3·1운동의 경험과 이후 민족운동의 변화에서 찾았다. 강만길, 「申采浩의 英雄, 國民, 民衆主義」, 丹齋 申采浩先生 紀念事業會 編,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螢雪出版社, 1986, 314 - 321쪽.
 - 26) 『불꽃』 7, 1926年 9月 1日. 梶村秀樹・姜德相 共編, 『現代史資料』 29, みずす書房, 1972, 419 - 421쪽에 일부가 日譯되어 있다.
 - 27) 金俊樺・金昌順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청계연구소, 1986, 226 - 227쪽. 이 내용은 1928年 1월에 開催될 豫定이었던 朝鮮共產黨 第3次 黨大會의 決議案에서 인용하였다.
 - 28) 『불꽃』 7, 1926年 9月 1日

- 29) 중국, 특히 상해 등 본토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은 “극동에서의 지도적인 혁명과제가 중국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1927년 莊介石의 北伐에 적극 참가하였고, 1928년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廣東코문에도 적극 참가하였다(남 웨일즈 지음,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1984). 하지만 1920년대까지만 하여도 사회주의자 가운데 이러한 共生的 實踐은 그다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 30) 그 내부에서도 多樣的 基準으로 類型化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다음 과제로 미루겠다.
- 31) ‘다물’이란 回復을 의미한다. 다물黨은 滿洲의 柳河縣, 樺甸縣 등지에서 활동한 단체다. 소속원들의 대다수가 政義府員이었다.
- 32) 이상은 「高警第182號 大正15年9月30日 다물黨ノ近情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情報』, 652쪽 ; 「大正15年9月30日 柳河縣三源浦ニ於ケル ‘タムル’ 黨」, 『日本外務省警察史 - 海龍分館編』, 5649 - 5656쪽을 정리한 것이다. 『다물통신』 창간호(1926. 7. 1)의 일부다.
- 33) 「高警第182號 大正15年9月30日 다물黨ノ近情ニ關スル件」,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情報』, 1926, 655쪽.
- 34) 高麗革命黨은 다물黨과 마찬가지로 政義府 소속원들이 대부분이었다. 黨 指導部의 상당수가 정의부의 간부로 활동하며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1926년부터 1928년 사이에 政義府 內에서 與黨의 役割을 수행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辛珠柏, 『滿洲地域韓人の 民族運動史(1920 - 45)』, 亞細亞文化社, 1999, 118 - 123쪽 참조.
- 35) 삼부의 인식과 활동에 대해서는 辛珠柏, 前掲書, 76 - 128쪽 참조.
- 36) 이에 대해서는 金東澤, 「근대 국민과 국가 개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大同文化研究』 40, 2002 참조.
- 37) 「오늘 우리의 사명」, 『獨立新聞』 1926年 9月 3日
- 38) 강령은 『島山安昌浩全集』 6, 2001, 827 - 828쪽 참조.
- 39) 사회주의운동 계열과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은 192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民族唯一黨 結成運動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통일된 민족운동의 지도부를 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도권 다툼과 제1차 國共合作의 와해 등으로 인해 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40) 「中共滿洲省委給中央的報告 - 關於滿洲政治經濟狀況及幾項具體工作問題(1931. 4. 24)」, 『東北地區革命歷史文件匯集』 甲8, 16 - 20쪽; 「團滿洲省委十二月分組織報告(1931. 1. 3)」, 前掲書 甲7, 238 - 240쪽.
- 41) 어쩌면 議會共和制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4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주백,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 연구 - 국내 공산주의운동 자료편』 I, 새길, 1989 참조.
- 43) 「中國共產黨의 朝鮮內抗日人民戰線結成および日支事變後方攪亂事件」,

- 姜德相 編, 前掲書 30, 265 - 266쪽. 在滿朝鮮人祖國光復會는 1936년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여 주로 咸鏡南道 甲山郡과 中國의 長白縣 일대에 조직을 두고 있었으며, 1938년에 일본의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辛珠柏, 前掲書, 433 - 479쪽 참조.
- 44) 1942年 中國 華北地方에서 結成된 朝鮮獨立同盟과 1939年 서울에서 結成된 京城靑그룹이 代表的인 例이다.
- 45) 이에 관해서는 辛珠柏, 前掲書, 317 - 335쪽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 46) 한국독립군은 1933년 10월경을 끝으로 만주에서의 무장활동을 그만두었다.
- 47) 「朝保秘第2069號 昭和4年11月26日 國民府第1回中央議會ノ顛末ニ關スル件」, 14 - 15쪽.
- 48) 「新派秘第342號 昭和12年6月19日 朝鮮革命軍ノ狀況ニ關スル件」, 771쪽.
- 49) 「朝保秘第2069號 昭和4年11月26日 國民府第1回中央議會ノ顛末ニ關スル件」, 14 - 15쪽.
- 50) 建國綱領은 趙素昂이 政治・經濟・教育의 均等, 곧 三均制 原理에 立脚하여 執筆한 文獻으로, 日本의 敗亡을 豫見하고 建國에 對備하기 위해 作成된 文獻이다.
- 51) 崔鍾健 編, 『大韓民國臨時政府文書輯覽』, 知人社, 1976, 263쪽.

要約

이 글에서는 日帝强占下 民族運動 勢力的 政治理念(代替權力)의 問題와 他者觀을 運動의 分化過程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韓國에서의 民主主義思想의 歷史의 淵源을 추적해 보고, 民族運動 勢力的 民主共和主義 理念의 分化過程에서 韓半島를 둘러싼 他者(他民族)를 어떻게 考慮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1910년대 민족운동 세력은 辛亥革命, 第1次 世界大戰, 러시아의 社會主義革命이란 對外的 狀況의 變化와 함께, 亡國의 責任者로서 兩班勢力과 隆熙皇帝를 지목하며 強力한 日帝에 對抗하기 위해 모든 朝鮮人이 大同團結해야 한다는 對內的 條件을 고려하여 市民革

命의 經驗도 없는 상태에서 서구의 共和主義 理念을 代案的 理念으로 수용하였다.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은 이를 確認하는 계기였으며, 1919년 上海에서 결성된 統合臨時政府의 성립은 민족운동가들 사이에 이 이념이 大勢로 確定되었음을 의미한다.

3·1운동 이후 조선인 사이에 다양한 사상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민족운동 세력은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으로 분화되었다. 그것은 공화주의사상의 분화를 의미한다. 민족주의운동 세력은 1920년대 중반을 경과하며 社會主義的 民族主義 理念으로 바뀌어 갔으며, 사회주의운동 세력은 1920,30년대를 거치며 활동공간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對替權力을 제시하였다. 양자의 정치이념은 抗日과 獨立이라는 共通分母 속에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었다. 민족운동 세력은 분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他者와의 共存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하지만 민족운동 세력은 민주공화주의 주체인 국민을 動員의 相對로 간주하였다. 大韓帝國期에 정착된 이러한 관념은 日帝強占期 求亡의 歷史, 鬭爭 中心의 歷史 속에서 제대로 심화될 기회가 없었다.